



“고향 팀서 백의종군”



KIA 타이거즈가 ‘뜨거운 감자’ 임창용(40)을 품었다.

KIA는 “지난 27일 늦은 밤 임창용과 연봉 3억원에 입단 계약을 맺기로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에서 개인훈련을 하고 있던 임창용은 28일 오후 귀국길에 올라 KIA와 향후 일정 대해 조율했다.

시즌 개막을 앞두고 발표된 깜짝 소식이다. 임창용은 지난해 불법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이라는 처벌을 받았다. 또 논란의 중심에서 서면서 소속팀 삼성에서 방출됐고, 한국 야구위원회(KBO)로부터는 한 시즌의 50% 출장 정지라는 징계를 받았다.

무적신분으로 22번째 시즌을 기다리고 있던 임창용은 여러 차례 구에 끝에 오랜 소원대로 고향팀에서 야구 인생을 마무리하게 됐다. 1998년 삼성으로 트레이드된 뒤 18년 만의 귀환이다. 진흥고를 졸업하고 1995년 ‘호랑이 군단’의 일원이었던 임창용은 어려웠던 팀 사정 탓에 1998년 겨울 삼성으로 트레이드됐다. 올 시즌에는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있는

임창용, KIA 입단...트레이드 18년만에 복귀

연봉 3억 전액 기부...지속적 재능기부 뜻 밝혀

73번째 경기부터 등판 가능...마운드 친군만마

그지만 기대했던 화려한 복귀는 아니다.

임창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올리기도 했지만 야구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것은 사실이다. 팬들은 물론 구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리빌딩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논란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는가”는 반대 목소리도 컸다. “영입대상으로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임창용까지 밝혔던 KIA였지만 ‘뜨거운 감자’를 삼켰다.

영입이 확정된 상황에서도 팬들의 의견은 갈리고 있다. 이에 임창용은 속죄의 의미로 야구 발전을 위해 연봉 3억원 전액을 기부하고, 지속적으로 재능 기부 활동을 펼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창용은 “자숙하고 반성하며 그러

드에 설 수 있기를 고대했고, 저에게 기회를 준 KIA 구단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야구를 다시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고, 다른 말 필요 없이 야구를 통해 백의종군하며 많은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셨던 팬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력상으로는 확실한 플러스 요인이기는 하다. 윤석민의 선발 이동 속에 뒷모고민에 빠져있던 KIA는 시범경기 기간에도 확고한 마무리를 찾지 못했다. 마무리 후보군은 많지만 이런저런 약점이 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프로야구 무대에서 활약을 한 베테랑 임창용은 불펜의 든든한 축이 될 수 있다.

선수단도 임창용의 합류를 반기고 있다. ‘캡틴’ 이범호는 28일 진행된 프로야

구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KIA로 외쳐서 고맙다. 임창용 선배가 돌아올 때까지 잘 버티고 치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임창용 합류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부담 많은 영입이다.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라는 의견 뒤에 가려진 도덕적 해이를 고민해야 한다. 프로 야구계는 지난해 선수들의 잇단 스캔들로 흥역을 치렀다. 그라운드 안팎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선수들의 일탈에 팬들은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그러므로 돌아오게 되면서 임창용은 면죄부를 받게 된다. 잘못된 선례로 남을 수도 있는 만큼 KIA는 내부 단속과 앞으로의 행보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영입을 맡아주지 않는 이들의 마음까지 헤아려, 해피 엔딩을 만들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지어졌다.

한편 KBO 징계에 따라서 임창용은 KIA가 72경기를 치른 뒤에야 마운드로 오를 수 있다. 징계기간에는 2군 경기에 나설 수 없다.

/김어윤기자 wool@kwangju.co.kr



28일 오후 서울 삼성카드 홀에서 열린 2016 타이어뱅크 KBO 미디어데이 & 팬페스트 행사를 마치고 10개 구단에서 참석한 감독과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태 감독 “내년엔 앞자리 앉겠다”

KBO 미디어 데이& 팬페스트 내달 1일 NC와 개막전 선발 양현중 예고

KIA 김기태 감독이 팬들에게 유쾌한 웃음을 선사하며 2016시즌 선전을 다짐했다.

프로야구 10개 구단 사령탑과 대표 선수들이 28일 서울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2016 타이어뱅크 KBO 미디어 데이& 팬페스트’ 행사를 가졌다.

새 시즌에 대한 구상과 각오 등을 밝히고 취재진과 참가팬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자리에서 김기태 감독은 행사장을 웃음 바다로 만들며 화제의 주인공이 됐다. 김 감독 특유의 말버릇이 발단이 됐다.

평소 ‘네, 저, 뭐’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김 감독은 KIA 팬으로부터 “인터뷰하실 때마다 네, 뭐, 저기 라는 추임새를 많이 쓰시는데 그 말 없애 팬들에게 영상편지를 남겨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행사 중계사에서 김 감독의 인터뷰 녹화 영상을 틀어 실제로 얼마나 많은 ‘네, 뭐, 저’를 사용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김 감독은 심호흡까지 하고 영상편지에

다전했다. “KIA팬 여러분 사랑합니다”까지는 잘 나왔다. 그러나 “올 시즌에도 많은 사랑과 저...”라는 말이 나왔다. 웃음을 참느라 얼굴까지 빨개진 김 감독은 겨우 “응원 부탁 드립니다. 사랑합니다”며 어렵게 미션을 소화했다.

한바탕 웃음이 지나간 뒤 김 감독은 다시 한번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말이 있다면 어떤 선수를 사위로 삼고 싶으냐”는 질문에 10개 구단 감독들의 대답이 이어졌고, 순서가 돌아온 김 감독은 습관대로 “저”라는 단어로 말문을 열었다.

같이 자리를 했던 윤석민까지 웃음보가 터졌고 이번에는 끝내 대답을 완료하지 못했다.

웃음을 선사한 김 감독은 팬들에게 “내년 행사에서는 앞에 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팬 여러분께 좋은 선물 안겨드리겠습니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순위예

따라 각 구단의 자리가 배정되면서 KIA는 뒷줄에 배치됐었다.

또 김 감독은 오는 4월1일 마산에서 예정된 NC와의 개막전 선발로는 양현중을 예고했다.

김 감독은 “작년에 NC에 많이 졌다.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NC 김경문 감독은 개막전 선발로 에릭 해커를 지목했다.

선수 대표로 참가한 이범호와 윤석민도 각오를 언급했다.

3년 연속 주장 타이틀을 맡은 이범호는 “이렇게 좋은 팀에서 주장 오레 할 수 있어서 좋다. 5강에 KIA 이름이 별로 안 올라오는데 예상을 뒤집어 보겠다”며 올 시즌 포부를 밝혔다.

우승 공약에 대해 언급한 윤석민은 “나랑 (양)현중이랑 팬들의 의견을 받아 소원 하나를 들어드리겠습니다”고 말했다.

/김어윤기자 wool@kwangju.co.kr

리디아 고 KIA 클래식 우승...LPGA 11승

박인비 2위, 박성현·신지은 4위

뉴질랜드 고교 리디아 고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KIA 클래식을 우승하며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의 위용을 뽐냈다.

리디아 고는 2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칼즈배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4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2개를 묶어 5언더파 67타를 쳤다. 최종합계 19언더파 269타를 적어낸 리디아 고는 세계랭킹 2위 박인비(28·KB금융그룹)의 추격을 뿌리치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리디아 고는 2016시즌 LPGA 투어 첫 우승을 신고하며 25만5000달러(약 3억원)의 상금을 거머쥐었다. 통산 11승째다.

세계랭킹 2위 박인비는 이날 버디 6개를 잡고, 보기는 1개로 막아 5언더파 67타를 치며 리디아 고를 1타차까지 추격했으나 합계 15언더파 273타로 어렵게 준우승에 머물렀다. 그러나 올 시즌 개막 전 바하마 클래식에서 허리를 다쳐 대회 출전하지 못하고 지난해 파운더스컵에서는 첫 탈락했던 박인비는 부진 탈출을



2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칼즈배드에서 막을 내린 미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KIA 클래식 우승자 리디아 고(뉴질랜드)가 우승컵을 들고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알렸다. 챔피언조에서 출발한 장타자 박성현(23·넵시스)은 첫 티샷이 왼쪽 숲으로 날아가면서 1번홀부터 더블보기를 적어내 일찌감치 우승권에서는 멀어졌다. 그러나 2번홀부터는 두 타를 줄이며 합계 11언더

파를 적어내며 신지은(24·한화)과 공동 4위에 자리했다. 김효주(21·롯데)가 합계 10언더파 278타로 공동 6위에 이름을 올렸고, 최나연(29·SK텔레콤)은 8언더파 280타로 허미정(27·하나금융그룹) 등과 함께 공동 12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